



꿈나무들의 합창 제62회 호남예술제 합창 경연이 30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광주송원초등학교 김명지 외 64명이 합창을 하고 있다. <입상자 명단 17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평화의 소녀상’ 속속 세워진다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 비판 새정부 정책기조에 탄력

광주 5개구 8월 건립 계획…전남 7곳 이어 2곳도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의지를 드러내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무효화 요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광주·전남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광주에는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소녀상을 볼 수 있다. 최근 광주 보문고등학교에도 소녀상에 세워졌다. 이는 ‘전국 고등학교 100개 작은 소녀상 세우기 프로

젝트’의 하나로 진행됐다. 앞서 광주 보문고와 상무고, 성덕고에도 소녀상이 세워졌다.

광주 5개 구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동참할 계획이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서구 추진위원회’가 지난 18일 출범했으며, 지난달에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광주 동구 추진위원회’도 발대식을 열었다.

이에 앞서 광산구와 북구도 ‘광산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와 ‘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중에 있다. 남구도 오는 6월 남구

■ 평화의 소녀상 건립 현황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 광장
	서구	치평동 상무고등학교
	서구	화정동 광덕고등학교
	광산구	운수동 보문고등학교
	광산구	장덕동 성덕고등학교
전남	해남군	해남공원
	목포시	근대역사관 앞(옛 일본영사관)
	무안군	남악중앙공원
	나주시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앞 광장
	순천시	조례호수공원
광성군	광성리	조례호수공원
	여수시	이순신광장 옆 평화공원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세계위안부의 날’인 오는 8월 14일에 맞춰 평화의 소녀상을 각 구에 건

립한다는 계획이다.

전남에도 해남과 목포를 비롯한 7개 시·군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있다. 소녀상은 해남, 목포, 무안, 나주, 순천, 곡성, 여수 등에서 볼 수 있다. 오는 6월과 내년 3월 담양과 장흥에도 각각 세워질 예정이다.

전남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무국장 오용운씨는 “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일본의 제대로 된 사죄를 통해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소녀상 건립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세운 동상으로 서울시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으로 세워졌다. /전은재기자 ej6621@

여수산단 또 화재…불안한 시민들

한화케미칼 1공장서 불…인명피해는 없어

지난해 9건 사고 6명 숨져…대형사고 우려

석유·화학업체가 대거 입주한 여수에서 화재·폭발·화학물질 차량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대규모 석유화학업체만 50여개가 입주한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이러다 대형사고가 터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30일 오전 7시40분께 여수시 여수국가

산업단지 내 한화케미칼 1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오전 8시15분께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는 1공장내 플라스틱 제조 원료인 폴리에틸렌 생산과정 고압분리기에서 이상 반응에 의한 가스누출로 발생했다. 급속 형태로 된 고압분리기 내부 온도가 갑작스럽게 300도까지 올라 입력이 치솟으

면서 안에 있던 화학물질인 에틸렌이 외부로 누출, 공기 중 산소와 만나면서 폭발했고 화재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경찰과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당국은 업체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날 사고는 인명 및 환경 피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여수산단에서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17일 여수산단에 입주한 한대기업 공장에서 열 교환기 청소 작업 중 이던 하청업체 직원 여보(30)씨가 끊어진

고압호스에 머리를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지난해 5월 27일에도 여수산단 한 화학공장 플랜트 보호 건물에서 협력사 직원 황모(39)씨가 동료 3명과 작업 중 새어나온 포스겐 가스에 노출, 병원 치료 2주 만에 숨지기도 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여수산단 입주기업에서만 9건의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전했다. 2015년에도 7건의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2014년에는 10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 1명, 부상 12명의 피해를 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0
해질녘 19:41

달돋이 10:55
달질 10:55

반가운 비

낮 한때 1~5mm의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주	호	리고	한	때	비	18/27	보	성	호	리고	한	때	비	15/24
목	포	호	리고	한	때	비	18/24	순	천	호	리고	한	때	비	18/27
여	수	호	리고	한	때	비	18/24	영	광	호	리고	한	때	비	16/25
나	주	호	리고	한	때	비	15/26	진	도	호	리고	한	때	비	18/25
완	도	호	리고	한	때	비	18/24	전	주	호	리고	한	때	비	18/27
구	레	호	리고	한	때	비	15/27	군	산	호	리고	한	때	비	17/25
강	진	호	리고	한	때	비	17/25	남	원	호	리고	한	때	비	16/27
해	남	호	리고	한	때	비	15/25	흑	산	호	리고	한	때	비	16/22
장	성	호	리고	한	때	비	15/25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남동~남 0.5	남~남서 0.5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5	남~남서 0.5~1.5
남해 앞바다	남~남서 0.5	남~남서 0.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남서 0.5~1.0	남~남서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동~남 0.5~1.0	남동~남 0.5~1.5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1:36 23:41	06:29 18:37
여수	07:11 19:22	01:03 13:22

◇주간 날씨

6/1(목)	2(금)	3(토)	4(일)	5(월)	6(화)	7(수)
17/28	17/27	15/27	15/28	16/29	18/25	18/26

◇생활지수

	관심
	높음
	보통
	피부질환

‘기름 유출 피해’ 진도군민 상경 시위

80여명 내일부터 이틀간 광화문광장서 피해 보상 촉구

세월호 기름 유출로 피해를 본 진도군민이 상경 시위를 계획하는 등 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진도군 등에 따르면 동거차도와 서거차도 주민들은 다음 달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할 예정이다. 마을 어촌계장 등 주민 80여명은 ▲합당한 피해 보상 ▲선 보상 후 인양업체에 구상권 청구 등 해수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할 방침이다.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이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세월호는 목포시항으로 옮겨졌지만, 세월호에서 유출된 기름이 미역 양식장을 덮쳐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며 “아직 보상도 받지 못한 진도군민은 제2의 세월호 피해자가 됐다”고 말했다.

동거차도에서 미역을 양식하는 13가구는 평균 1억8000만원씩 모두 23억원, 자연산 미역 채취에 종사하는 주민 70여명은 1000만원씩 모두 7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진도산 수산물 기피현상까지 번지고 관광 산업도 직격탄을 맞아 보이지 않는 피해는 훨씬 크다”며 “세월호 침몰 당시 생계를 접고 승객 구조에 앞장선 진도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전남도 죽산보 개방 앞두고 대응팀 꾸린다

다음 달 1일 죽산보 상시개방을 앞두고 관계 기관들이 영향 분석을 위한 현장 대응팀을 꾸린다.

전남도는 죽산보 상시개방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 ‘영산강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영산강팀은 보 개방 전·후 환경영향, 수위와 유량 모니터링, 안전대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의 주도로 광주시, 전남도, 영산강 물환경연구소, 영산강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한다. 물 관리 기관과 광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영산강 통합 물관리 실무협의체를 모태로 했지만, 나주시 등 기초단체의 참여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윤현식기자 chadol@

24/35PY 분양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 온세계 아이조움

분양 전환 계약금 500만원

대출 70% OK!

이자만 납부 OK!

청약 통장 NO!

즉시 입주 OK!

24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35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분양문의 (062) 610-9232